

코로나 확진자 속출...의료체계 통제불능 우려

무증상·경증 감염자 '조용한 전파'에 광주·전남도 비상

서울과 경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전국적인 확산세까지 보이면서, 자칫 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통제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염 확산의 양상이나 통제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5월 쿠팡·이태원 때보다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 관련 감염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경북 지역의 교인이었고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집단감염 역시 방역당국이 확진자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역학조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씩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5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는 감염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무증상·경증 감염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진단했다. 신천지와 이태원, 쿠팡 사례에서는 방역당국이 감염자를 한정하고 추적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런 방식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금 수

도권 유행에서는 6개월간 누적돼 왔던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고,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분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과 군, 경찰서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2명이 확진됐고 군에서는 경기 가평 육군 제3수송교육연대 병사 1명, 대북정보부대 소속 군무원 1명 등 2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해화경찰서 등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 경찰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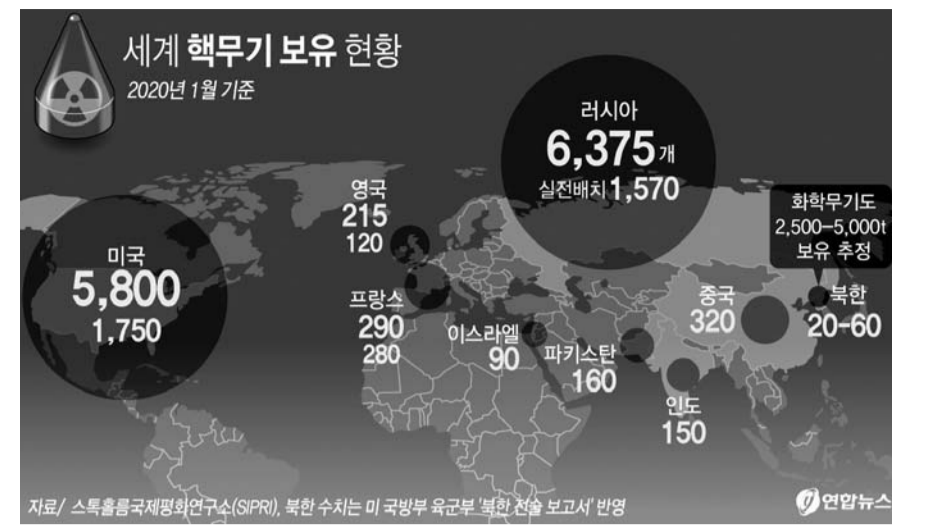
감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격리도 불가능해진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파는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천지 교회 집단발병 때는 교인들이 모두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발견된 집단감염이 음식점과 재래시장, 유흥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또 다른 시설을 고리로 확산하는 것도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방역당국은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추적 등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데, 구매기록을 찾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선 이런 방법으로 모든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문자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발병하기 이전의 노출력과 발병 후 5일 정도까지 어느 장소를 갔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방역 역량이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밀접 접촉자 외에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능동감시 대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장시간 머물렀던 경우라면 노출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북한, 핵무기 최대 60개 보유”

美 육군부 보고서...화학무기 세계 3번째로 많아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보유량도 최대 5천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미국 국방부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며, 매년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조영균 전 통일부 장관이 2018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꺾을 수 있는 보고도 나왔다.

김정은 일가는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2011년 리비아 혁명을 맞은 것을 목도했고, 이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 육군부는 북한이 사린가스와 VX를 비롯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약 20종의 화학무기 2500~50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밝혔다.

생화학무기 개발 가능성도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연구를 시작했고 탄저균과 콜레라, 황열병, 천연두, 티푸스 등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탄저균과 천연두를 무기화할 수도 있고, 한국이나 미국, 일본인을 타깃으로 삼아 미사일로 쏠 수 있다"며 "단 1kg의 탄저균으로 서울 시민 5만명을 죽음을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정총리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상 지역에 서울과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며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우형 갈림길에 접어들어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논의...9월 중 특별법 발의 추진

전남도는 18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국가지원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승남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 박진경 지방행정연구회 위원,

조정찬 숭실대 교수 등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 중인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돌

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범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기존법률이 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내 인구는 지난 70년대 대비 68%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52%가 감소해 지방

인구감소를 계속 방치하면 지역사회붕괴는 시간문제"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다음 달 초까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북도와 상생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법률 제정 필요성 확보,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발주했다. /김형호 기자 khh@

아베, 건강이상설에 사임설까지

피 토하고 느린 걸음...연속 재임 신기록 앞두고 정밀검진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연속 재임 신기록 달성을 앞두고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가 17일 도쿄 게이오대학 병원에서 돌연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이 확산했고, 일본 정가 일각에선 사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까지 포함한 전체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 오는 8월 24일이면 연속 재임일수 기준으로도 외종조부(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의 기존 기록(2798일)을 넘어설 예정이다.

신기록 달성을 코앞에 둔 아베 총리 관련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것은 공식 기자회견을 꺼리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다. 지난 4일 발매된 일본 주간지 '플래시'가 지



난 7월 6일 관저 내 집무실에서 아베 총리가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피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등으로 피로가 쌓여 아베 총리의 걸음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일본 민영 방송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예고 없이 게이오대 병원을 찾은 데다 같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 7시간 이상 검사를 받아 건강 이상설이 확산했다.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평일에 종일 시간을 낼 수 있어 여러 체크를 한 것일 뿐"이라며 아베 총리의 몸 상태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분할협약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그린디앤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레논이앤씨(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0년 08월 18일 개최된 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분 30.0%의99 제3자에게 할당된 재산만을 출자원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를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협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갑사의 주주는 해당사의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08월 19일

갑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원당로333, 107호(4층)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몰(주)이앤씨

회사명 주식회사 그린디앤씨
사법이사 장광원

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지미로39번길 30, 1층(산안동)

회사명 주식회사 레논이앤씨
대표이사 배승희

산행안내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통령휴양림 저도 망불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성계곡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